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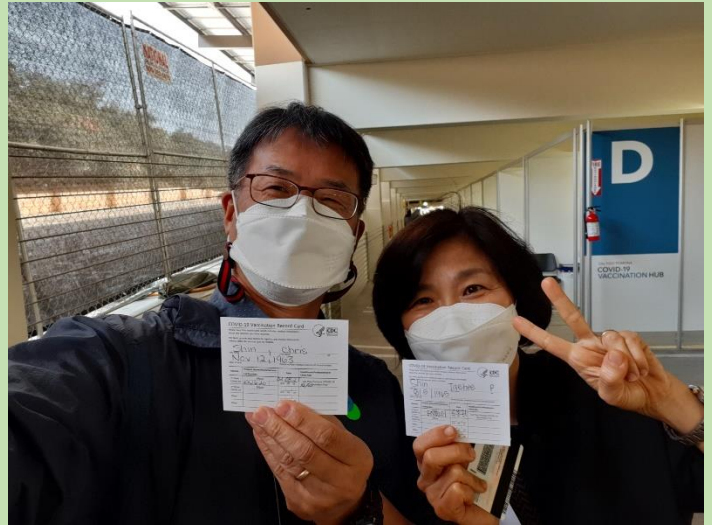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 여러분께,

이제는 미국입니다!

지난 여름 방글라데시를 떠난 후  
한국에서 5 개월여의 시간을 뒤로하고  
얼마전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  
오기전 새롭게 바뀐 코로나관련 입국  
정책으로 저희는 여섯번째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왔지요. 그렇게 여러번 하는데도  
할 때 마다 괜히 긴장되고 걱정스러운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 믿음이 적은  
자여!

먼저 지난번 편지의 기도부탁에 응답하신  
일부터 나누어야겠네요.

저희는 며칠 전 감사하게도 1, 2 차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면허로  
의료인 카테고리 신청을 하고  
현장에서는 램병원 아이디어로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기도해 주신대로 사역지로  
들어가기 전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미국에 들어와서 첫번 째 주일엔 큰 딸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타바바라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파킹장에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스피커 덕분에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찬양과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예배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찬양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맘이었습니다.



(성찬식에서 나누어 준 위에 떡이 있고 아래에 포도주가 있는 성찬 세트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성찬 방식! 😊)

다음주엔 저희가 파송받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파킹장에 주차한 차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국을 떠나오기전 어떤 비자로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관광비자를 신청하러 한국주재 방글라데시 영사관에 갔을 때 저희의 입국의도를 의심스러워하며 혹시라도 다시 일을 하러 가는 건 아닌지 캐묻는 바람에 한국에서 비자 수속하는걸 포기한 경험도 한 못했었지요.

게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설령 관광비자를 받는다 해도 단수에 체류기간이 30 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연 그 짧은 시간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관광비자가 아예 닫힌 인도에서 섬기시는 스님들께서 비지니스 출장비자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대학 은사님께서 애써 주셔서 방글라데시에 지부를 둔 한국의 치과장비 회사와 연결되어 출장비자를 수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바로 서류를 준비하고 혹여라도 실수를 피하기 위해 비자대행사를 통해 수속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한 비지니스비자가 아닌 관광비자가 발급된겁니다. (방문비자이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5년 복수비자를 받았습니다 !!)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건지 알아본 결과 저희 방문목적이 비지니스 미팅이나 트레이닝에 해당이되어 비지니스 비자가 아닌 관광비자에 부합된다는 답변을 영사관 측으로 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병원일에 관여하며 섬길 수 있을지 병원 리더쉽과 기도하며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되었든 저희가 있는 기간 동안 비자는 만료되었는데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사역자들로 인한 공백으로 점점 더 큰 짐을 지게된 병원의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 뿐입니다.

지난 주엔 큰 딸아이가 1주일 휴가를 내어 함께 자동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고 오는 길,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딸아이의 시간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신 증거들을 발견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딸 아이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을 통해 사교지 안에서 의료같은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에만 마음을 쏟느라 사교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르심을 -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 잊곤하는 저를 다시 되돌아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불확실한 비자 상황으로 인해 학교 생물교사로 일하며 부분적으로 치과에서 섬길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큰딸, 하영이를 아낌없이 빛어가시며 영광 받으실 아버지를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큰딸이 비영리단체를 통해 기부 받은 치과기구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기구들이 새로 시작하는 치과에서 귀하게 사용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전, 모든게 엉클어진 듯 보이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몰라하는 스스로가 너무 답답해서 사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왜 보내셨는가 울며 떼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속 깊은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 놀라운 일에 "끼워주신"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한 번만 써 달라고,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가르쳐주소서,  
저로 배우고 깨닫게 하소서!

저희는 이제 2 주 뒤엔 7 번째!! (아마도  
만일을 대비해 7 번째와 8 번째 검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다시  
방글라데시로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갈 때와는 사역지의 상황도  
크게 달라졌고 저희의 비자상황도  
바뀌어서 저희 앞에 무엇이 펼쳐지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하실것을  
믿기에 평안 가운데 떠나려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친구,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으니까요! 😊

3.내과, 소아과의 젊은 로컬 닥터들과  
자주 교제의 자리를 마련하고픈 소원이  
있습니다. 닥터들이 열린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4. 2 년 가까웠던 한국생활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둘째, 하경이가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5. 8 월 말 방글라데시로 떠날 준비를  
하는 큰딸, 하영이가 매일 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기도해주세요.

사랑을 드리며,

신태희, 신창은 올림

기도해주세요!

1. 입국시 입국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90 일 체류기간이 주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2. 병원에 머무는 동안 치과셋업과 병원  
업무를 도울 때 지혜와 분별력,겸손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